

# ‘명낙대전’ 서 명낙 동시타격으로...민주 추격자들 공격 강화

### 정세균·추미애·박용진, 이재명 정책 비판...김두관, 이낙연 견제 양강 후보 때리고 존재감 부각...이재명·이낙연 ‘경선 승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양강 주자를 겨냥한 나머지 주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이른바 ‘명낙 대전’이 잦아드는 분위기와 맞물려 나머지 대선 후보들의 ‘명낙 동시타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대권 주자 1·2위의 지지율과 다른 후보들 간 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역전의 기회를 엿보는 주자들로서는, 양강 후보를 때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양강 주자를 번갈아 공격했던 정세균 후

보는 최근 공격의 타격을 이재명 후보에 맞추는 모습이다. 3차 TV 토론에선 ‘봉이 김선달이냐’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12일 “기본적으로 양강 후보를 모두 공격하는 전략이지만, 최근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화력을 이재명 후보에 더 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명-추 연대’를 형성했던 추미애 후보도 ‘이재명 비판’에 가세했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개혁성을 고리로 이낙연 후보 비판을 이어가되 1등 견제도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부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연일 비판 중이다. 전날 열린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도 박 후보 공격의 초점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판에 맞춰졌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1등 후보와 대립하는 건 당 연한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가장 부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낙연 후보 견제에 집중하고 있

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경선 불복 논란, 탈원전 발언 등으로 이낙연 후보와 캠프 인사들을 연일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우리와 겹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이낙연 후보 진영은 이날 ‘경선 승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각 캠프 선대위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불복’ 논란을 낳은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설훈 의원을 향해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 설훈 선대위원장이 화답하

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캠프는 설 의원이 앞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경선 불복의 의도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이른바 ‘경선 불복’ 논란과 관련해 “내 사전에 불복은 없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설훈 의원의 격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지자 명확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의 공청회.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왼쪽부터),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문장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법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24일 전후 대선 출마 선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당원게시판과 SNS에 올린 글에서 “진보집권을 꿈꾼 동지들의 헌신을 희망으로 부활시키자.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겨냥, “한국 정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다. 현 정부를 통해 삶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시민의 바람은 허탈감과 분노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 야권을 향해서도 “이 틈을 타고 탄핵 이후 숨죽이던 세력이 살아났다”며 “가난한 시민이 불량식품을 먹는 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떠들고,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강변하는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진보정당이 더 큰 힘을 갖지 않으면, 불평등한 이 사회의 한 귀퉁이라도 제대로 부술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오는 24일을 전후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野대안 수렴 후 다시 협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 관계자는 “여당 주도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큰 만큼, 주

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마련해보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통화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중재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주관으로 언론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체위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재소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가 주말 사이 징벌적 배상을 둘러싼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 ‘당 대표 탄핵’ vs ‘대표 흔들기’...윤석열-이준석 갈등 악화

### 국민의힘 당내 우려 목소리 김중민 “서로 말 아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전이 거듭되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라디오에서 ‘당 대표 탄핵’을 거론하면서 기를 부었다. 곧바로 ‘대표 흔들기’라는 반박이 나왔다. 이 대표는 12일 SNS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캠프 내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이 대표와의 갈등설을 일축했음에도, 정작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견제성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신지호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신지호 실장을 향해 “속히 캠프를 떠나라”며 당 윤리위원회 차원의 처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SNS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 “보수 우파 계열에 앞장서다가 토사구팽이 돼 선화하신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 일부 절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당 대표를 흔들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 위한 비전보다는 당내 내용이 부각되면서 대선 승리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SNS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영화 ‘미나리’에서 (조연인) 윤영정 선생님이 스스로 주연이 되려 오버했다면 미나리는 실패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필요한 말과 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중민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의 당내 상황에 대해 “서로 조금씩 말을 아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제야당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만 골몰하면 되지, 발언들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캠프 인사들을 향해서도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해야지, 평상시 시사평론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오는 18일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이 대표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감정 of 풀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임시 봉합’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